



사람만큼이나 힘든 반려동물의 여름나기



반려동물 피부관리방법

반려견의 경우 빗질 방향 바꾸기
반려묘는 햇빛과 통풍이 중요

바야흐로 장마철이 있는 여름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습한 제주도는 여름철에 그 습함이 최고점에 이르른다. 이러한 계절에 반려견과 반려묘는 어떻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을까.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장모종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미용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외의 단모종과 고양이들은 겨울철 털을 죄다 벗어버리려 집안과 밖은 그야말로 털과의 전쟁일 것이다.

이런 털들로 인해 보호자의 스트레스도 가장이 되겠지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부의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털관리,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자.

우선 장모종인 경우 지속적으로 미용을 해주고 있더라도 털 안쪽의 피부를 눈여겨 관찰해줄 필요가 있는 계절이다. 제주도의 습한 여름은 피부내의 곰팡이가 증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철은 미용하는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혹여나 피부에 이상이 생긴 친구를 미용한 뒤에 미용을 하게 되거나, 안그래도 뜨거운 여름철 기계에 열도 빨리 발생하게 돼 이러한 열이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열이 내려가면 피부의 자극도 내려가는 것이 보통인데 미용을 하고 온 뒤에도 피부의 발적이 그대로이고 반려동물이 안절부절 못하고 어딘가를 연신 핥는다던지 긁는 행동을 보인다면 피부표면을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목욕을 하고난 금방은 각질이나 발적 부분이 일부 사라지거나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서 미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인가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모종인 경우에는 그 동안 털을 민다거나 하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진료를 하다보면 오히려 피부병은 단모종에서 호발하는 경우가 많다. 털이 짧다는 이유로 목욕을 하고 건조하는 시간을 매우 짧게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털이 많이 빠지는 것이 단모종인 터라 여름철이 되서 털을 밀어주는 보호자분들이 많다. 이 때는 짧게 밀는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털 상태에 따라(혹은 품종에 따라) 그 길이와 클리퍼의 사용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햇빛과 통풍이 매우 중요한 계절이고 이것만 잘 맞춰준다면 반려묘의 피부는 소중한 그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엄청 더러워진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묘의 목욕은 권장하지 않는다. 고양이의 털은 강아지들과는 달리 그 습함을 지니는 것이 더 탁월하다. 웬만큼 잘 말릴 자신이 없다면 은근한 햇빛이 내리쬐는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쉬는 게 반려묘의 피부병 예방에는 제일이다.

그럼 이제는 집에서 반려동물들의 습한 여름철 털관리, 나아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보려한다.

우선은 너무 기름진 간식은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식도

계절적으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평상시의 털 관리는 빗질을 자주 해주면 좋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빗질의 방향이다. 우리는 흔히 귀엽고 깜직한 반려견들을 쓰다듬듯이 빗질 또한 그 방향으로 해주고 있다. 빗질을 해줄 때에도 우리는 반려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빗질의 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즉, 머리에서 꼬리쪽으로 쓰다듬듯 해주던 빗질을 정 반대로 꼬리를 자신의 앞쪽으로 두고 멀어져 있는 머리쪽으로 빗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리는 발바닥에서 몸통 방향으로 빗어주는 것이다. 평소 자주 목욕을 하고 빗질을 했던 아이는 이렇게 반대로 해줘도 잘 빗어지지만 털이 엉키거나 탈락된 털이 많은 경우에는 역방향 빗질이 쉽지않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빗질의 방향만 바꿔줘도 습한 여름철 습기로부터 반려동물의 피부에 공기를 넣어줘 피부의 쾌적함을 유지토록 도울 수 있다.

목욕 이후 털을 말릴 때에는 반드시 역방향의 빗질을 해줘야 하고 드라이룸에서 말리는 경우에도 간혹 반려동물을 꺼내 역방향 빗질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말려야 한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부위는 바로 발가락과 귀 뒤 목부분이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는 반드시 손으로 그 부위의 털을 만져가며 피부까지 마른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귀 뒤의 털이 많은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반려동물의 피부관리, 반드시 실천해 보자.



고형주
사랑동물병원장

영화觀

행복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자면 아마도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를 미워하는 일, 나를 싫어하는 일, 나를 마땅치 않아하는 일은 쉽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해도 오늘의 나는 썩 맘에 들지 않는다. 그저 이번 생은 망했다고 넘어가고 싶지만 태어났으니 살아야 한다. 한 번뿐인 이 생에서 하루 바빠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생각하면 매일 다급해진다.

아니 내 인생의 핸들을 쥘 건 나인데 그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

지금 극장가에 나를 사랑해서 행복한 그래서 아름다운 이들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어쩌면 이 두 작품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고 낯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화일 수 있다. 9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한 인물의 삶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영화라는 매체는 종종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모어'와 '니 얼굴'이 바로 한 인물의 삶을 척척과 몽클하게 전하는 마법과도 같은 영화들이다.

이일하 감독의 다큐멘터리 '모어'는 하나의 호칭으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 '모어'에 관한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발레리나, 뮤지컬 배우, 안무가, 드랙퀸이자 성소수자인 모어, 모지민과 그의 삶은 독보적으로 아름답다.

독보적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까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 위에서 춤추는 이의 순간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순간, 그의 춤사위에 삶의 어떤 순간들이 겹쳐지는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영화 '모어'

서동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니 얼굴'은 그림을 통해 세상과 마주하는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이야기다.

최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희' 역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정은혜 작가의 매력에 극찬을 유쾌하게 이끄는 '니 얼굴'은 예쁜 얼굴도 안 예쁘게 그려주는 캐릭터 작가 은혜 씨의 성장 일기인 동시에 편견과 한계라는 단어 위를 덧칠한 잊지 못할 그림일기다. 행복을 그리는 일, 삶을 채우는 일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는 은혜 씨를 응원하며 그런 나 자신 또한 응원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모어'에 관한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결코 쉽지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은 일, 나를 사랑해서 나로 행복해지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순간에 다가서는 일.

'모어'와 '니 얼굴'은 그렇게 그 순간을 전해주는 영화들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서귀포시 남원읍선거구)

송영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원읍청우회·특우회·청사회